예수님의 비유

48 씨 뿌리는 비유

마 13:1~23
찬송가 260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 95장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배울 말씀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심을 압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버림으로 잃어진 영혼이 많음을 알고 경계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 ] 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 ] 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 ]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 ] 에 떨어지매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 13:3~9)

말씀을 이해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네 종류의 마음 상태를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길'은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길가에 씨가 뿌려질 경우 결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으며 결국 새들이 씨앗을 먹어 버립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 경우 새,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다음으로 흙이 깊지 않은 돌 밭은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아직 깨어지지 않은 완악한 마음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런 곳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나지만 뿌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돋은 후에 곧 말라 버립니다. 햇빛은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뿌리가 없는 식물에게는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핍박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는 반면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는 신앙의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비유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덮여 있는 마음에는 말씀이 전해진다 해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끝으로, '좋은 땅'은 진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상태를 비유한 것으로 이러한 마음에 말씀이 전해질 때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 신앙이 나날이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 13:23)

"But he who received seed on the good ground is he who h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who indeed bears fruit and produces: some a hundredfold, some sixty, some thirty." (Mt 13:23)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 얻게 되는 결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해 표현한 그림을 보고, 네 종류의 밭과 관련된 사람의 마음상태와 관련된 성경인물을 적어봅시다.

네 종류의 밭	마음상태	성경인물
	말씀을 전혀 받아 드릴 마음이 없는 강팍한 상태	바로왕, 유대 종교가들

2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나의 마음상태가 어떤 밭과 같은지 비교하여 이야기해 봅시다(마 13:18~23, 막 4:15~20, 눅 8:12~15).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3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 상태를 원하실까요?

4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정한 후 그 사람의 마음상태가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말씀)를 뿌릴 수 있을지 적어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신 33:3	
월	시 89:15	
화	막 4:28	

수

행 10:33

목

살전 2:13

금

히 2:1

토

히 4:2

향기 나는 진흙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향기를 발산하는 진흙을 얻었습니다.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또 진흙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비결은 내가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흙이 지닌 향기는 진흙 위에 오랫동안 백합화가 뿌리를 박고 꽃을 피우며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밴 것이었습니다.

진흙과 같이 우리 인생이 향기로운 삶이 되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도 생겨나고 친구와 이웃에게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이나 전도지로서의 전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삶이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전도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5)

질문 있어요~

구원받은 일시를 꼭 알아야만 하나요?

구원 받았다는 말이나 거듭났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이 어머니 태에서 한번 태어난 것같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태어난 날이 확실히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날도 확실히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 1:6)

그러므로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특별히 그 날을 기억하지 않아서 정확한 일시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경험은 꼭 있습니다.